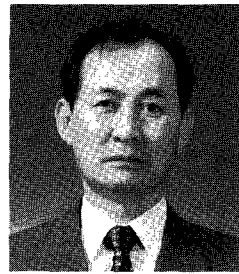


## 양계단지의 정착방안



이 광 식

영농조합법인 평택양계조합 대표

‘풍요속의 빈곤’이란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 생각되는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 동료 양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양계발전에 힘써 주시는 양계인 여러분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국제경쟁력 재

고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양계업의 불안정한 구조속에서 수입 닭고기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육계가격 하락의 피해가 심했고, 산란계의 경우 유난히도 심했던 가금티푸스를 비롯한 질병의 피해와 종계 및 실용계의 생산능력 감소 등으로 고난가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양면성을 보인 해였습니다. WTO 체제도입에

따른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과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 한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많은 구조적 모순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계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와 같은 약간의 외압이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는 장기적 안목에 의한 투자

미흡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시장의 힘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을 외부의 힘에 의존한 우리 양계인의 탓도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계산업이 당면한 문제점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경쟁력 제고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비시장의 규모를 감안한 장기적 안목의 생산시설 투자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설비의 내구성을 검증하여 융자금도 상환하기 전에 시설이 무용지물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상자 선정은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의 붕괴, 자동화 시설의 조기 부실화 등을 초래하여 결국 양계인의 어깨만을 더욱 무겁게 할 것입니다.

둘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허점입니다. 우리사정에 맞는 표준설계의 미비,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 계속되는 사료가격의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 등은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이 구호에만 그칠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안정적인 사료공급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은요인은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료의 부가세 영세를 적용과 같은 눈가림식 정책을 지향하고 진정으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양축농가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토록한 영농조합법인은 대규모 기업농과는 달리 영세농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동출자한 특수법인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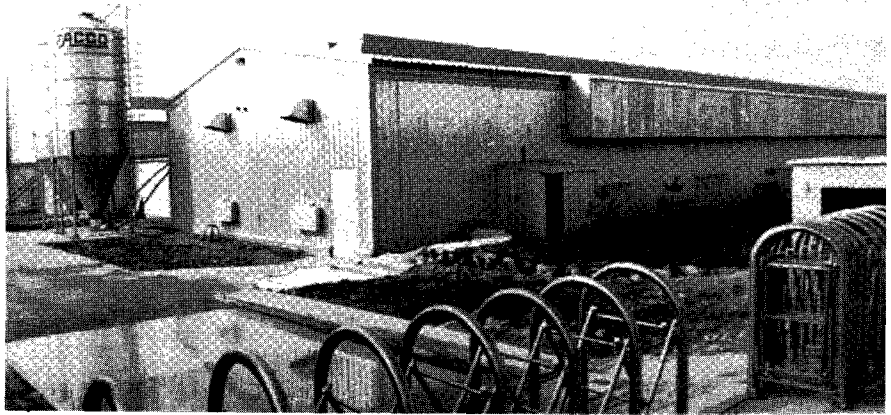
셋째 복잡하고 취약한 유통구조와 생산자의 영향력 부족입니다. 계란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동안 누누히 이야기되어온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계란수급의 불균형,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공급의 어려움, 이중가격의 형성으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 생산자를 배제한 상인위주의 유통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계인 모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신선하고 값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기본목표 하에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의 단결을 통해 정부 및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유통구조 혁신을 꾀하고, 생산자의 유통시장 직접 참여, 난가고시의 현실화, 가공 및 저장능력 확장을 통한 수급 조절능력 배양, 새로운 부가가치란의 개발, 그리고 품질개발 및 홍보강화를 통한 소비촉진 등 많은 개선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에 지난해 닭고기수입에서 보았듯이 계란도 WTO체제의 수입개방에서 결코 안전할 수 만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평택양계조합은 '90년 9월에 양계단지 구성을 위한 회원 모집을 시작으로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4년 3월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현재는 완전자동화 설비로 건설한 계사 6동

에 35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계사에서 배출되는 계분을 가공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계분발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설을 이용하여 인건비 및 사료비의 절감을 유도하고, 컴퓨터로 정



밀 관리되는 사육조건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산란율을 향상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사내에서부터 자동포장까지 전공정에 에어사워 방식의 공기세척 방법을 도입하여 물세척을 하지 않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은 우리 조합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계사 2동을 추가로 건설하여 연말에는 총 60여만수로 확장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계분발효시설의 확장을 통해 계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판매시장 확대를 꾀할 것이며, 특수란을 개발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20억원을 투자하여 계란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저온 및 냉동창고를 갖추어 계란의 수급조절을 유도할 것이며, 유통시장에도 직접 진출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한 계란을 하루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택양계조합은 국내 영농조합법인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으로 축산업 특히 양계산업이 가야할 길을 개척해 성공사례의 표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동료 양계인 여러분, 돌이켜보면 양계산업은 정부나 생산자 모두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 방편식 접근이 많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이러한 실수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을 상기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양계인의 생산자세, 그리고 복잡한 유통구조 등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양계인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계인 여러분 각자의 노력과 혁신, 단결없이는 발전되어갈 것이 없고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양계인이 힘을 합쳐 서로 격려하며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면서 여러 축산제위 및 동료 양계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14**